

아시아교육연구 20권 4호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19, Vol. 20, No. 4, pp. 1011-1037.

<https://doi.org/10.15753/aje.2019.12.20.4.1011>

# 사회공헌 목표의 발달 궤적과 그 유형: 공동체 의식, 시민성, 삶의 만족을 중심으로

임효진(林孝璉)\*

## 논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사회공헌 목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탐색하고, 이러한 발달 궤적의 유형을 분류하여 그 특성을 기술한 뒤, 발달 유형과 공동체 의식, 시민성,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한국교육총단연구 2005(KELS 2005)의 6차년도(2010년)부터 11차년도(2018년) 중 5시점에서 측정된 설문자료를 추출하였다. 이어 잠재집단 성장모형으로 발달 궤적과 그 유형을 분류한 뒤, 3단계 방식의 혼합모형을 사용하여 공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사회공헌 목표는 분할함수 성장모형에 의해 설명할 수 있었으며, 이질적인 발달 유형은 3개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공헌 목표는 1기에는 변화가 적었던 반면 2기에는 변화율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목표 평균 유형, 목표 상승 유형, 저목표 하락 유형으로 나뉘었다. 또한 6차년도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평균이나 목표 상승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혼합회귀분석에서 공동체 의식은 성장 요인인 초기값과 변화율들을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시민성은 각 시점의 사회공헌 목표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마지막으로 발달 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목표 상승 유형과 목표 평균 유형은 저목표 하락 유형보다 높은 삶의 만족을 보였다. 연구에서는 대학생 시기 이후의 사회공헌 목표의 발달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고 이를 유형화하여 보다 적응적인 목표 발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회공헌 목표, 공동체 의식, 시민성, 삶의 만족, 분할함수 잠재집단 성장모형

## 1. 서론

목표는 동기 부여의 원천이자 동시에 개인의 포부를 표상하는 심리적 구인이다(Austin & Vancouver, 1996). 전생애적(life-span) 관점에서 가까운 미래의 성취를 위한 목표뿐만 아니라 인생의 전 과정에 걸친 목표를 지향하는 것은 삶의 의미에 대한 탐색과 행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Emmons, 1996). 현대 사회에서 아동·청소년기와 성인기는 그 안에서의 경험이 매우 다르고, 이 두 시기의 간격은 점차 넓어지고 있다. 따라서 그 중간에 위치한 청년기 혹은 성인 초기(emerging adulthood) 단계의 발달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Arnett, 2000; Schwartz, 2007). 이 시기의 전생애적 목표 추구는 건강한 발달의 요소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목표 추구가 심리적 안녕감, 진로와 직업 발달,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이다(고영남, 2017; 김양분 외, 2010).

생애목표가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미래목표(future goal)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Kasser와 Ryan(1996)은 물질적 성공, 외모, 명예 등을 지향하는 외재목표와, 개인적 성장, 의미있는 관계, 사회적 공헌 등을 지향하는 내재목표를 소개한 바 있다. 국내 연구자들(김성수, 윤미선, 2013; 최영미, 송인섭, 2013) 역시 이와 같은 이차원 구조를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생애목표의 차원을 파악하는 것 못지 않게 각 목표의 구체적인 내용 또한 고려해야 한다(김민성, 조운정, 2017; 임효진, 류재준, 2019; Vansteenkiste, Simons, Lens, Sheldon, & Deci, 2004).

생애목표에서는 개인적 차원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측면과 사회적 차원에서 구성원과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측면이 있다(Damon, Menon, & Bronk, 2003), 사회적 차원에서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는 개인을 넘어선(beyond-the-self) 관심사를 가지며, 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먼 미래 때로는 평생에 걸친 지향점(aim)으로 작용한다(Bronk, 2014). 개인 지향적인 목표가 아닌 타인과 공동체 지향적인 목표를 가지는 것은 긍정적 정서(Hill, Burrow, & Bronk, 2016)와 삶의 만족(Bronk, Finch, & Talib, 2010; Lee, Matthews, Shin, & Kim, 2018)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있다. 이렇듯 사회적 공헌을 지향하는 목표는 그 자체가 친사회성이나 이타성과 같이 바람직한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 및 시민성과도 연결된다(Lee et al., 2018; Schwartz, Keyl, Marcum, & Bode, 2009).

본 연구에서는 사회공헌 목표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고 발달 궤적에서 서로 다른 유형이 구분되는지 그리고 공동체 의식, 시민성과 구분된 발달 유형 및 목표 지표와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본 뒤, 마지막으로 유형에 따라 삶의 만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생애목표 전체 혹은 내·외재목표에 대한 변화를 알아본 연구들은 중고등학생(문병상, 2013; 정유지, 이은주, 2018), 대학생(Lüdtke, Trautwein, & Husemann, 2009; Salmero-Aro & Nurmi, 1997)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이후 시기의 연구 대상을 수집한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생애목표의 추구는 전생애적 발달에서 중요한 과제이며 목표 추구는 어느 한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가치 지향으로

확장된다(Bronk, 2014). 따라서 대학생 이후의 목표 발달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적인 목표가 아니라 특수한 목표 내용(사회공헌)에 초점을 두고 이것이 어떻게 발달하며, 이러한 목표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공동체 의식, 시민성과의 관련성은 어떠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교 졸업 이후까지 사회공헌 목표는 어떠한 형태로 변화하는가?
2. 목표의 발달 궤적에 의해 분류되는 유형은 몇 개로 나타나며, 각각의 특성은 어떠한가?
- 3-1. 공동체 의식은 발달 유형과 성장 요인(초기값과 변화율)을 어떻게 예측하는가?
- 3-2. 시민성은 시점별 목표 수준을 어떻게 예측하는가?
- 3-3. 발달 유형에 따라 삶의 만족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사회공헌 목표<sup>1)</sup>

Emmons(1996)의 주장에 따르면 개인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목표는 삶에 “통합성과 목적”을 제공한다고 하였다(p. 147). 생애목표는 목표 기준의 소재에 따라 외재목표와 내재목표로 구분되며, 전자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보상에 초점을 두고 후자는 개인의 성장이나 사회의 발전에 초점을 둔다(Kasser & Ryan, 1996; Grouzet et al., 2005). 목표 기준의 소재 뿐만 아니라 가치의 일반적 성격에 따라, 직업과 관련된 사회 영역에서의 성공을 지향하는 성취 지향 목표와 개인 삶과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안녕감을 지향하는 삶 지향 목표로 나누기도 한다(신종호, 서은진, 이유경, 2011).

이처럼 목표의 소재나 차원에 의해 구분하는 것은 구체적인 목표 내용에 의한 차이를 상대적으로 덜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관련 요인들의 효과는 목표 내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목표 내용을 구분하여 성장신념, 그릿(Grit)과의 관계를 모형화한 연구(임효진, 류재준, 2019)에서는 모든 목표 내용이 동일한 패턴을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였으며, 외재목표(부, 명성, 이미지)와 내재목표(개인성장, 관계, 사회공헌) 각각에 속하는 목표 내용끼리도 결과에 차이를 보였다.

1) 생애목표를 주제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목표(goal)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생애목표 중에서도 개인을 넘어서 초월적 특성에 주목하여, 사회와 세계를 지향하는 목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목적(purpose)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Yeager et al., 2015). 본 연구에서 다루는 목표는 목적 혹은 사회적 목적(social purpose)에 대한 연구에서 다루는 구인이지만, 구인의 조작화와 측정에 있어서 미래의 진로나 직업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묻는 문항들을 중심으로 한 「한국교육중단연구2005」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이라는 용어를 따로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 목표(social goal)라는 용어는 성취목표(achievement goal) 이론에서 말하는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능력에 대한 목표 지향을 말하기 때문에(Wentzel, 2000), 이와 구분하기 위해 ‘사회공헌 목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즉 외재목표 혹은 내재목표로 묶인 목표들끼리도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목표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요인이나 발달 수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추구하는 목표의 내용이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는 주장 역시 목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를 더해준다. 예컨대 청소년 초기에는 여가 목표를, 이후에는 가족이나 직업, 부와 관련된 목표를 더 추구한다는 결과(Nurmi, Poole, & Kalakoski, 1994)가 있으므로, 특정 목표가 어느 시기에 어떤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생애목표의 가치는 개인적 수준 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준을 반영한다(Kasser & Ryan, 1996). 본 연구에서는 목표 내용 중에서도 공동체와 사회 발전에 공헌하려는 목표에 관심을 두었다. 전생애에 걸쳐 추구하는 가치나 지향점을 연구한 학자들(Damon et al., 2003)은 목적(purpos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를 “개인에게 의미있고 개인보다 더 큰 세계에 중요한 어떤 것을 추구하려는 안정적이고 일반화된 의도”(p. 121)라고 정의한 바 있다. ‘개인보다 더 큰 세계’를 중요시한다는 것은 타인, 공동체 혹은 사회의 이익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기초월적(self-transcendent) 목표를 의미한다(Yeager et al., 2015).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목적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는데(Lee et al., 2018), 이는 개인적 성공이 아닌 공동체와 세계(지역사회, 이웃, 국가, 다음 세대, 인류)에 의미있는 것을 추구하려는 목적을 말한다(Bronk et al., 2010; Damon et al., 2003; Hill et al., 2016).

## 2. 목표 발달과 유형화 연구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목표의 선호가 뚜렷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따라서 개인적 경험과 환경적 변화를 거쳐 고유한 목표를 정교화하는 과정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부터 나타난다(김은석, 송경희, 2019). 또한 발달 시기에 따라 목표 선호 뿐만 아니라 목표 추구 역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청소년기 초기에서 중기로 가면 목표의 달성 기대는 변하지 않지만(Malmberg, Ehrman, & Lithén, 2005)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이 변화한다(Nurmi & Pulliainen, 1991). 또한 청소년기 중기 이후에는 목표 달성의 유능감이 변화한다(Nurmi et al., 1994).

이는 연령대에 따라 목표의 변화와 안정성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연구 중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거치며 목표가 변화할 수 있으나(Nurmi, 1987), 대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는 다양한 경험과 확장된 자율성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변화하지 않는다(Lüdtke et al., 2009)는 결과가 있다. 구체적으로 먼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내·외재목표의 발달을 연구한 문병상(2013)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외재목표는 증가하는 반면 내재목표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Lüdtke 등(2009)은 고등학교 3학년 부터 대학교 2학년까지 생애목표는 그 내용에 있어서 잘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하

었다. 즉 과반수가 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선택한 목표를 유지하는 반면 일부 학생들만 목표 지향 수준이 점차 높아지거나 낮아졌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Salmera-Aro와 Nurmi(1997)는 대학생 시기의 생애목표가 졸업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토대로 목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대학교 졸업 이전까지의 발달 양상을 알아보고 있지만, 졸업 이후는 취업, 결혼, 독립 등 중요한 생애 사건(life event)에 의해 목표 선호와 목표 추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Lüdtke et al., 2009)이 있으므로 청년기와 그 이후의 목표 발달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편, 다양한 목표들을 분류, 유형화한 연구들은 대체로 횡단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예컨대 초등학교 5,6학년의 미래목표를 평균, 저발달, 내재목표, 고발달 유형으로 구분(임효진, 이채원, 2019)하거나, 고등학교 3학년의 생애목표를 생애목표 추구형, 보편형, 생애목표 저발달형으로 구분(김은석, 송경희, 2019)한 연구가 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는 고목표형, 중저목표형, 저목표형으로 구분(인효연, 길혜지, 2017)하기도 한다.

반복 측정된 자료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유형화를 시도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 중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생애목표는 고목표, 관계지향 평균, 성공외면 평균, 저목표 유형으로 구분되고, 절반에서 약간 넘는 학생들이 같은 목표 유형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유형 전이가 나타났다(정유지, 이은주, 2018)와, 대학교 1학년 이후 내·외재목표의 평행한 발달 과정에서 평균, 무변화, 저목표-성장, 복합, 고목표-감소 유형이 나타난 결과(임효진, 최은주, 박호익, 2019)가 있다. 또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대학교 1학년 시점에서 내재적 생애목표의 발달 유형은 고수준 감소형, 중간 수준 유지형, 저수준 증가형으로 나타났다(임성애, 2019). 요약하면 목표 유형화 연구들에서는 목표 추구 수준의 상이함이나 외재목표 또는 내재목표 어느 한쪽의 우세함에 의해 분류의 기준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사회공헌 목표와 공동체 의식, 시민성의 관계

생애목표와 관련된 요인들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결론은 이들 목표가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학업성취, 진로, 직업, 적응 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Bronk, 2014; Bronk et al., 2010; Damon et al., 2003; Hill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사회공헌 목표의 발달과 유형화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이 목표의 성격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체 의식, 시민성과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먼저 공동체 의식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유대감을 포함한다. 이 개념은 공동체에 소속감을 가지고 사건과 경험에 대한 정서를 공유하는 한편,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공동체 내에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정의된다(McMillan & Chavis, 1986).

공동체 의식은 공동체 집단에 대한 단순한 귀속을 의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집단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실천적 의식까지도 포함한다(박가나, 2009).

공동체 의식은 시민성(citizenship)과도 연결된다. 시민성은 시민의식, 시민참여 등과 더불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공통적인 특성은 개인이 속한 공동체와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의지가 포함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동체 의식과도 일부 중첩되는 경향이 있다. 시민성은 지식, 기능, 태도를 망라하여 모든 시민을 위한 참여와 봉사를 토대로 공동체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식으로 정의된다(조찬래, 2012; Ross, 2007).

공동체 의식과 시민성은 ‘참여’ 행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봉사, 협력, 도움, 기부 활동에의 참여 혹은 시민, 정치 단체 활동에의 참여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선행 연구에서는 공동체 의식, 시민성 모두 개인이 아닌 사회의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사회공헌 목표에서 말하는 ‘개인을 넘어선’ 초월적 목표의 특성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공동체 의식과 사회기여 목표가 서로 관련이 있었으며(이현주, 채유정, 2014), 공동체와 긍정적 관계를 인식하면 이타적인 목표를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김태한, 2017; Grant, 2008). 또한 공동체 의식이 높은 학생들은 생애목표를 높은 수준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김은석, 송경희, 2019).

#### 4. 사회공헌 목표와 삶의 만족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사회공헌 목표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행복, 안녕감과 관련하여, 발달 유형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체로 삶 지향 목표(우정, 지역사회 공헌, 가족 및 친척과의 화목)를 가진 청소년들은 성취 지향 목표(부, 직업성공)를 가진 청소년보다 자존감, 자아정체성 등 자기관련 도식을 긍정적으로 발달시키며, 이러한 목표는 또한 삶의 만족에도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한다(고영남, 2017). 또한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와 사회 발전을 지향하는 경우 자신의 삶을 더 의미있게 생각하며 성취, 적응 등에 있어서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다수의 연구들(Grant, 2008; French & Joseph, 1999; Furrow, King, & White, 2004; Ryff, 1989)이 있다. 따라서 사회기여 목표의 발달과 삶의 만족과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자료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집한 「한국교육종단연구2005(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이하 KELS)」의 학생 설문조사 결과이다. KELS에서는 2005년 당시 전국 150개 중학교 1학년 학생 중 표본으로 선정된 6,908명의 인지적·정의적 발달,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교 교육을 조사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대학 진학과 직업획득 과정, 대학원 진학 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6차년도(2010년), 대학교에 입학한 7차년도(2011년), 9차년도(2014년), 대학교 졸업 후인 10차년도(2016년), 11차년도(2018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8차년도(2012년)는 사회공헌 목표 문항이 포함된 생애목표 검사지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7차년도에 대학생으로 구분된 3,686명의 응답자료를 분석하였다.

#### 2. 연구 변인

##### 1) 사회공헌 목표(6-11차)

KELS의 생애목표 검사지 중 사회공헌 목표는 6차년도부터 11차년도(8차년도 제외)까지 측정된 4문항을 사용하였는데, 이 문항들은 자신의 일이나 직업이 사회의 발전이나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목표를 추구하는지를 묻고 있다. 문항들은 목표에 두고 있는 가치(인지적 요소)를 측정하는 2문항(예: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일을 하는 것이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과 실제 그 목표를 추구하는 헌신(행동적 요소)을 측정하는 2문항(예: 나는 앞으로 내가 가질 직업의 사회적 기여 정도를 생각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값은 .71~.82로 나타났다.

##### 2) 공동체 의식(6차)

공동체 의식에서는 협력학습, 즉 학교 활동에서 다른 학생들과 협력하는지(예: 집단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즐겁다), 타인배려, 즉 다른 사람의 감정과 의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지(예: 나보다는 타인을 먼저 배려한다), 참여의식, 즉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자 하는지(예: 좋은 사회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를 각 하위 요인별로 4문항씩 총 12문항을 묻고 있다. 각 문항은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신뢰

도인 Cronbach's  $\alpha$  값은 협력학습이 .72, 타인배려가 .61, 참여의식이 .68, 전체는 .80으로 나타났다.

### 3) 시민성(9-11차)

시민성은 연구 대상의 사회 참여의식을 알아보는 영역에 속해 있으며 선거 투표(예: 선거 때 투표한다), 납세(예: 납세의 의무를 다한다) 및 국방의 의무(예: 언제든지 국가가 필요로 하면 군대에 간다), 규범 의식(예: 법과 규칙을 지킨다), 정부 활동에 대한 관심(예: 정부가 하는 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다), 단체 활동(예: 사회 단체나 정치 단체에서 활동한다), 경청(예: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윤리의식(예: 조금 비싸더라도 윤리, 환경 등에 좋은 상품을 선택한다), 봉사(예: 나보다 어려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 등 10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1= '전혀 중요하지 않다'부터 5='매우 중요하다'까지 7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값은 .85에서 .86의 범위로 나타났다.

### 4) 삶의 만족도(11차)

삶의 만족도는 1문항으로 측정된 것을 사용하였다. 이는 "전반적으로 현재의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1='매우 불행하다'부터 10='매우 행복하다'까지 10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 3. 연구 모형과 자료 분석

분석을 위해 잠재집단 성장모형(Latent Class Growth Model)을 적용하였다. 잠재집단 성장모형은 혼합모형(mixture model)의 일종으로, 이는 집단 내의 이질성(heterogeneity)에 관심을 갖는 개인중심적 접근법(person-centered approach)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반복측정된 지표들을 토대로 성장 요인(초기값[=절편]과 변화율[=기울기])을 추정하였고, 다양한 발달 패턴을 비교하기 위해 무변화모형, 선형모형, 이차함수모형, 분할함수모형을 비교하였다.

이와 함께 발달 궤적의 모양을 기준으로 연구 대상 내 잠재집단이 몇 개 나타나는지를 탐색하였는데, 지표가 발달 궤적을 그릴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잠재집단의 수를 2개부터 하나씩 늘려가며 가장 적합한 집단 수가 몇 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잠재집단 분석은 연구자가 임의로 정한 집단이 아닌 연구 대상 내의 집단을 확률적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집단 내의 다양한 분포를 좀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모형 적합도를 비교하여 여러 가지 모형 중에 자료에 가장 부합되는 모형을 선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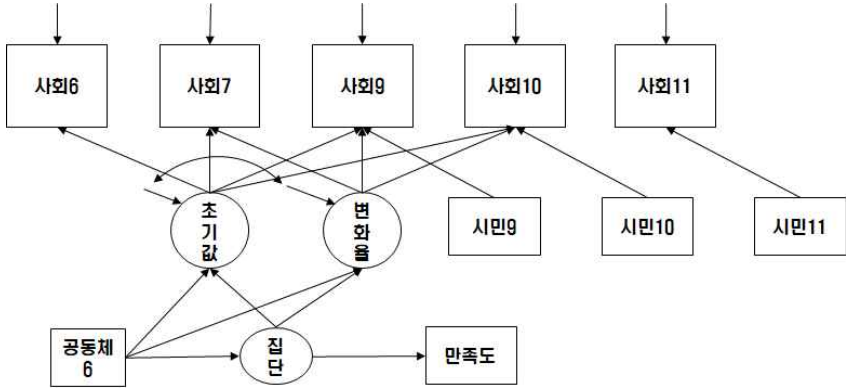


여기서 최적의 모형 평가를 위한 적합도 지수로 사용한 것은 Akaike Information Criterion(AIC), Sample-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SS-BIC), Entropy, Likelihood Ratio Test(LRT)이다. 먼저 AIC와 SS-BIC는 값이 더 작을수록 더 나은 모형으로 볼 수 있다. Entropy는 잠재집단 분류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분류로 간주된다. LRT는 k개의 잠재집단 모형을 지지하기 위해 k-1개의 잠재집단 모형이 기각되는지를  $\chi^2$  검증을 통해 확인하는데, p값이 유의하지 않으면 더 작은 수의 모형이 지지된다. 마지막으로 집단 수의 이론적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즉, 최종적으로 선택된 모형에서의 잠재집단 내 각 사례수가 이론적으로 부합하고 실제로 해석이 용이한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 의식, 시민성, 삶의 만족도가 공변인으로 투입된 조건 모형을 사용하였다. 공동체 의식(6차)은 예측변인으로, 만족도(11차)는 결과변인(distal outcome)으로, 시민성(9-11차)은 시간의존(time-dependent)변인으로 투입([그림 1] 참조)하였다. 공동체 의식은 교내외 활동이나 교우 관계 등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값과 변화율을 예측하는 것으로 설정하였고, 시민성은 문항에 선거, 국방, 납세의 의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대학교 입학 이후의 인식이나 경험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공변인을 포함한 조건 모형의 분석을 위해 3단계 방식(3-step approach, Asparouhov & Muthén, 2014)을 사용하였다. 3단계 방식은 기존의 1단계 방식에서 공변인들과 잠재집단의 지표를 함께 분석하는 경우 공변인에 따라 잠재집단의 수가 변화하고 지표변인으로부터 잠재집단을 올바르게 도출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방식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sparouhov와 Muthén(2014)의 제안 방식에 따라 다음의 세 단계를 거쳐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1단계로 공변인들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재집단의 수를 다르게 하여 적절한 집단의 수를 결정하였다. 2단계에서는 계산된 사후 확률(posterior probability)에 근거하여 개인별로 잠재집단을 할당하였다. 이때 할당된 집단은 명목형 변인(n)으로 제시되는데, 개인이 해당 집단에 속할 확률(p)로부터 계산된 집단이므로 실제 해당 집단에 속할 확률과의 차이 즉 측정오차 때문에 발생하는 확률(1-p)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1단계에서 추정된 분류의 오차 확률(misspecification rates)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오차를 교정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개인별로 고정된 집단을 토대로 공변인의 효과를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혼합회귀분석(mixture regression)으로 알아보았다.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여기서는 성장 요인인 초기값과 변화율의 공분산을 설정하고, 잠재집단이 성장 요인 각각을 예측하게 하였다. 또한 공동체 의식은 집단 소속(membership)과 성장 요인을 모두 예측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시간의존 변인인 시민성은 9차부터 3시점 측정되었기 때문에 각 시점에서의 지표인 사회공헌 목표를 예측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분류된 집단이 예측하는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주1. 사회=사회공헌 목표; 공동체=공동체 의식; 시민=시민성; 만족도=삶의 만족도  
 주2. 변인명 뒤의 숫자는 측정시점(예: 사회6=6차년도 사회공헌 목표)

결측치는 기대-최적화 알고리즘(EM: expectation-maximization algorithm)을 사용하였다. 이는 결측 자료의 분포 모양을 가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결측치에 대한 우도값을 추정하는 방법이다(배병렬, 2014). 사용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23.0와 Mplus 7.2이다.

## IV. 연구 결과

### 1. 기초 통계와 상관 분석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각 변인들의 왜도는 절댓값 기준 최소 .008에서 최대 1.270이고, 첨도는 절댓값 기준 최소 .607에서 최대 2.457으로 나타났다. 왜도와 첨도가 각각 절댓값 2.0과 절댓값 7.0이하로 나타나 본 연구 자료의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다(West, Finch & Curran, 1995). 상관계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사회공헌 목표, 시민성의 상관은  $p < .001$  수준에서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사회공헌 목표와 공동체 의식(협력학습, 타인배려, 참여의식)의 상관 역시  $p < .001$  수준에서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공헌 목표는 삶의 만족도와  $p < .001$  수준에서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1>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사회6	1.000											
2.사회7	0.465 ***	1.000										
3.사회9	0.431 ***	0.433 ***	1.000									
4.사회10	0.383 ***	0.388 ***	0.514 ***	1.000								
5.사회11	0.353 ***	0.355 ***	0.488 ***	0.574 ***	1.000							
6.시민9	0.272 ***	0.276 ***	0.412 ***	0.293 ***	0.278 ***	1.000						
7.시민10	0.180 ***	0.163 ***	0.200 ***	0.230 ***	0.158 ***	0.305 ***	1.000					
8.시민11	0.110 ***	0.123 ***	0.170 ***	0.176 ***	0.212 ***	0.289 ***	0.590 ***	1.000				
9.만족도	0.107 ***	0.088 ***	0.150 ***	0.190 ***	0.219 ***	0.194 ***	0.137 ***	0.230 ***	1.000			
10.협력	0.280 ***	0.201 ***	0.213 ***	0.184 ***	0.185 ***	0.195 ***	0.148 ***	0.142 ***	0.121 ***	1.000		
11.배려	0.359 ***	0.252 ***	0.224 ***	0.237 ***	0.204 ***	0.216 ***	0.161 ***	0.136 ***	0.121 ***	0.369 ***	1.000	
12.참여	0.392 ***	0.247 ***	0.257 ***	0.227 ***	0.213 ***	0.260 ***	0.225 ***	0.205 ***	0.126 ***	0.381 ***	0.535 ***	1.000
평균	3.254	3.204	3.222	3.150	3.053	4.023	6.076	6.022	6.562	3.122	3.595	3.615
표준편차	0.603	0.608	0.614	0.645	0.641	0.517	0.837	0.828	1.715	0.632	0.503	0.592
왜도	-0.008	0.030	-0.194	-0.193	-0.136	-0.067	-1.270	-1.259	-0.598	-0.447	-0.135	-0.219
첨도	0.777	0.607	1.387	1.244	1.195	0.919	2.283	2.457	1.240	1.198	1.463	0.769

주1. 사회:=사회공헌 목표; 시민=시민성; 만족도=삶의 만족도

주2. 협력, 배려, 참여는 공동체 의식의 하위 변인(각각 협력학습, 타인배려, 참여의식)

주3. 변인명 뒤의 숫자는 측정 시점(예: 사회6=6차년도 사회공헌 목표)

## 2. 사회공헌 목표의 발달 궤적과 유형

### 1) 성장모형의 비교

사회공헌 목표의 8년 간의 발달에 대해 여러 패턴을 가정하기 위해 모형1부터 모형4까지를 통해 가장 적합한 궤적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무변화모형(모형1)은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다고 가정

하여 초기값만 추정하였다. 선형모형(모형2)에서는 초기값과 변화율을 추정하되 초기값의 요인계수는 모두 1로, 변화율의 요인계수는 6차년도는 0, 7차년도는 1로 고정하여 기준 간격을 설정하되, 9차년도부터는 고정적으로 측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시점의 차이의 변화 크기를 자유롭게 추정하기 위한 자유모수변화모형을 가정하였다. 다음 이차함수모형(모형3)에서는 초기값과 변화율 그리고 변화율의 증감을 알아보는 이차항까지를 설정하고 변화율이 시간에 따른 증감이 있다고 가정하였다. 마지막 분할함수모형(모형4)에서는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성장모형 함수에 질적으로 다른 기간을 구분하는 분할함수를 적용하여 변화를 추정하였다(Li, Duncan, Duncan, & Hops, 2001). 여기서는 고등학교 3학년(6차)에서 대학교 1학년(7차)까지와, 대학교 4학년(9차)에서 졸업 후 3년 경과(11차)까지의 구간을 나누어 서로 다른 변화율을 가질 것으로 가정하고 초기값과 함께 1기 변화율과 2기 변화율을 설정하였다.

〈표 2〉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

모형	$\chi^2$	df	CFI	TLI	RMSEA
모형1: 무변화모형	799.61	13	.848	.883	.128
모형2: 선형모형	81.896	7	.986	.979	.054
모형3: 이차함수모형	34.261	6	.995	.991	.036
모형4: 분할함수모형	33.632	6	.995	.991	.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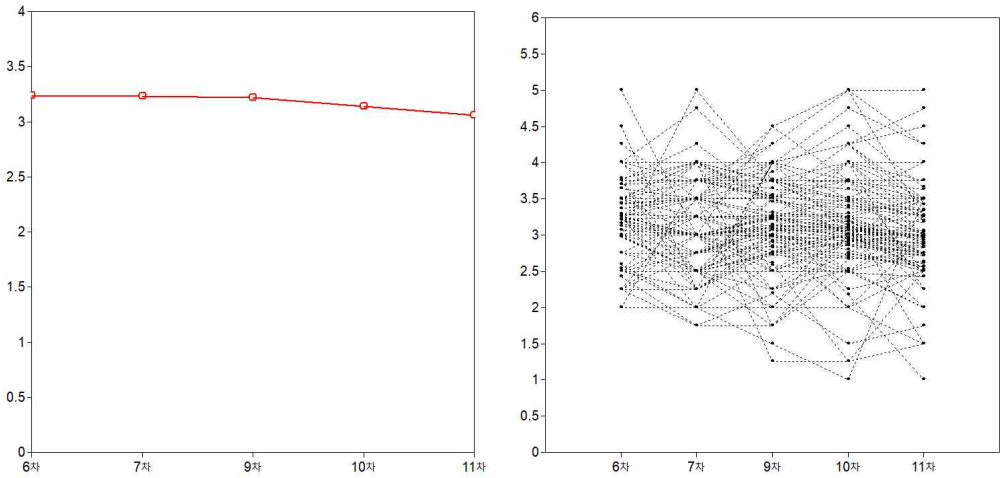
〈표 2〉에는 다양한 발달 궤적의 모형들을 비교한 모형 적합도가 제시되어 있다. 시점에 따른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 모형1은 가장 적합도가 낮았으며, CFI, TLI .90이상, RMSEA .08이하의 수용가능 기준(Hu & Bentler, 1999)에 미치지 못하였다. 모형2는 수용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모형3과 모형4까지는 좋은 모형의 기준에 맞는 CFI, TLI .99이상, RMSEA .05이하를 만족시켜 가장 자료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간의 비교를 위하여  $\Delta \chi^2$  검정 결과를 살펴보았는데, 모형2와 모형3은 유의한 차이( $\Delta \chi^2 = 47.635$ ,  $\Delta df=1$ ), 모형2와 모형4 역시 유의한 차이( $\Delta \chi^2 = 48.264$ ,  $\Delta df=1$ )를 보였으며, 이로써 선형모형에 비해 이차함수모형 또는 분할함수모형이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모형4와 모형5의 경우 적합도 지수들의 값은 유사하여 양호도의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문제와 같이 공변인들과의 관계를 포함하게 되면, 이차함수모형의 경우 이차항 변화율의 해석은 가속도로 보는 것 말고는 실질적인 해석이 어려운 반면 분할함수모형의 경우는 각 시기 별로 변화율을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따라서 모형 적합도와 해석 가능성, 실제적 유용성을 고려하여 분할함수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표 3〉에는 분할함수 잠재성장 모형의 성장 요인에 대한 결과가, [그림 2]에는 시간에 따른 사회공헌 목표의 전체 평균(왼쪽), 무선 100명의 개인 관찰 점수(오른쪽)의 결과가 그래프로 제시되어 있다.

〈표 3〉 분할함수모형에 따른 사회공헌 목표의 성장 요인

초기값(I)		1기 변화율(S1)		2기 변화율(S2)		공분산
평균 (표준편차)	분산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분산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분산 (표준편차)	I with S1 (표준편차) I with S2 (표준편차)
3.238*** (.009)	0.181*** (.009)	-.077 (.003)	.009*** (.001)	-.081*** (.005)	.026*** (.004)	-.009** (.003) -.011*** (.003)

\*\* $p < .01$ , \*\*\* $p < .001$



[그림 2] 사회공헌 목표의 변화 그래프(좌측: 전체 평균, 우측: 개인 관찰점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사회공헌 목표의 성장은 초기값이 3.238로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1기 변화율은 -.077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2기 변화율은 -.081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대학교 1학년까지는 변화가 없고 그 이후 목표가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공분산을 살펴보면 두 시기 모두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여 초기값이 높을수록 더 빨리 감소하는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성장 요인들의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개인차를 고려하면 연구 대상 내에 상이한 발달 궤적의 유형이 존재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 2) 발달 궤적의 집단 수와 특성

최종 선정된 분할함수모형을 기준으로 집단의 수를 하나씩 늘려가며 최적의 집단 수를 확인하기 위해 모형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발달 궤적의 잠재집단 분류를 위한 모형 비교

	AIC	SS-BIC	LMR-LRT	VLRT	Entropy	잠재집단 내 사례수 비율(%)
2	29583.44	29638.07	.000	.000	.985	99.4, 0.5
3	29283.04	29349.80	.000	.000	.856	7.5, 85.0, 7.3
4	29267.27	29346.18	.867	.865	.890	1.6, 90.7, 4.7, 2.8
5	29143.76	29234.80	.000	.000	.879	8.0, 0.8, 0.5, 10.4, 80.1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SS-BIC=Sample-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LMR-LRT=Lo-Mendell-Rubins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VLRT=Vuong-Lo-Mendell-Rubins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먼저 정보 지수를 살펴본 결과 집단의 수가 늘어갈수록 AIC와 SS-BIC 값이 작아졌다.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 지수는 모두 0.8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이어 LMR-LRT, VLRT 결과는 3집단 대 4집단 모형을 비교한 결과 3집단 모형이 적합함을 보여준다. 또한 5집단 모형에서는 전체의 1% 미만 사례수를 포함하는 집단이 나타나(집단 2과 집단 3, 각각 0.8%, 0.5%) 해석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3집단 모형을 채택하였다.

〈표 5〉에서 최종 선택된 3집단 모형의 사후확률평균(mean posterior probabilities)을 보면 각 집단에 속할 것으로 분류된 연구 대상이 실제로 그 집단에 속하게 되는 확률이 .84에서 .95로 비교적 양호하게 분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집단 소속의 사후확률평균

	비율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 1	7.6%	0.836	0.164	0.000
집단 2	85.0%	0.030	0.952	0.019
집단 3	7.3%	0.000	0.133	0.8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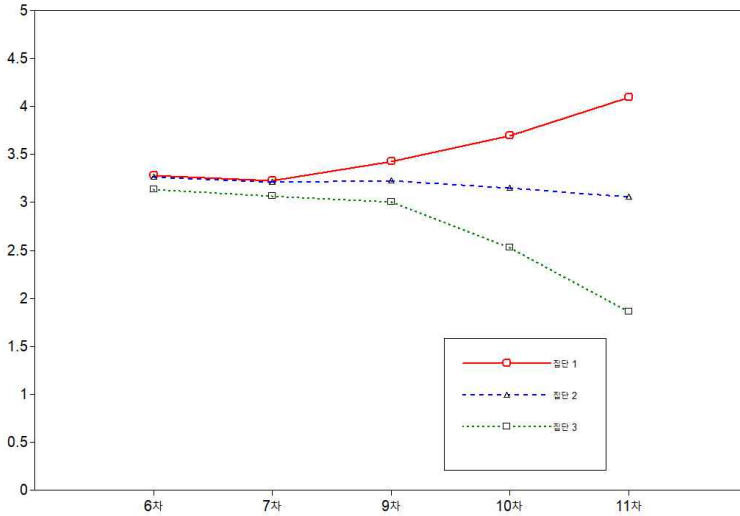
집단의 수가 3개로 확정되었으므로 각 집단별 특성을 알아보았다. 〈표 6〉은 3집단 모형에서 발달 궤적을 나타내는 성장 요인의 값이다. 먼저 집단 1은 전체의 7.6%를 차지하며 목표의 초기값은 〈표 3〉에 나타난 유형화하기 전의 전체 집단 값과 비슷하지만 1기 변화율과 2기 변화율이 모두 상승하고 있어 ‘목표 상승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2는 전체의 85%를 차지하며 전체 집단의 초기값, 변화율과 비슷하게 나타나 ‘목표 평균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 3은 초기값이 다른 두 집단 보다 낮으며 1기 변화율은 유의하지 않으나 2기 변화율이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이후 목표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저목표 하락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3]은 이러한 세 유형의 발달 궤적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

<표 6> 발달 궤적 유형의 비율과 성장 요인 특성

		유형별 초기값과 변화율		
		초기값	1기	2기
1. 목표 상승 유형 280명(7.6%)	평균	3,246***	0.048*	0.348***
	(표준편차)	(.047)	(.019)	(.039)
2. 목표 평균 유형 3134명(85.0%)	평균	3,248***	-0.009*	-0.080***
	(표준편차)	(.010)	(.004)	(.005)
3. 저목표 하락 유형 272명(7.4%)	평균	3,122***	-0.032	-0.575***
	(표준편차)	(.044)	(.020)	(.034)

\*\* $p < .01$ , \*\*\* $p < .001$



[그림 3] 사회공헌 목표 발달 궤적의 유형

### 3. 공변인을 투입한 조건 모형

분류된 발달 유형의 예측변인인 공동체 의식과 시간의존 변인인 시민성의 효과, 결과변인인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과 혼합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 1) 공동체 의식의 예측 효과

공동체 의식이 집단 소속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3단계 분석의 R3STEP을 사용하여,

협력학습, 타인배려, 참여의식을 추가했을 때 집단 분류가 변화하지 않도록 고정한 상태에서 변인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사례가 한 집단에 비해 다른 집단에 속할 확률이 달라지는가를 알아보았다. <표 7>에서와 같이 저목표 하락 유형을 기준으로 하면 협력학습이 높을수록 목표 평균 유형( $B=.305, p<.01$ )이나 목표 상승 유형( $B=.388, p<.01$ )에 속할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타인배려나 참여의식은 집단 소속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반면, 목표 평균 유형을 기준으로 하면 협력학습과 타인배려는 집단 소속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지만 참여의식이 높을수록 목표 상승 유형( $B=.383, p<.01$ )에 속할 확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에 공동체 의식 전반 보다는 그 하위 요인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유형에 따라 소속 확률을 달리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공동체 의식의 발달 유형 소속 예측 결과

	저목표 하락 유형 대 목표 상승 유형		저목표 하락 유형 대 목표 평균 유형		목표 평균 유형 대 목표 상승 유형	
	B	SE	B	SE	B	SE
협력학습	0.388**	0.147	0.305**	0.109	0.083	0.110
타인배려	0.175	0.209	0.213	0.149	-0.038	0.160
참여의식	0.243	0.190	-0.140	0.141	0.383**	0.141

\*\* $p<.01$

## 2) 공동체 의식과 시민성의 혼합회귀분석

다음으로는 공동체 의식과 시민성이 성장 요인과 각 시점별 목표를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혼합회귀분석으로 알아보았다. 공동체 의식은 6차년도에만 측정되었기 때문에 초기값과 각 시기 변화율을 종속변인으로, 시민성은 9,10,11차년도에만 측정되었기 때문에 각 시점별 지표를 종속변인으로 하였다.

<표 8>을 보면 발달 유형별로 회귀계수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먼저 공동체 의식의 예측력을 목표 상승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초기값에 대해서는 협력학습( $\beta=.190, p<.05$ ), 타인배려( $\beta=.400, p<.001$ ), 참여의식( $\beta=.230, p<.05$ )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1기 변화율에 대해서는 협력학습( $\beta=-.352, p<.05$ )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고3 시점의 협력학습, 타인배려, 참여의식 점수가 높을수록 목표의 초기값이 높고, 협력학습 점수가 높을수록 대1 시점까지의 변화율은 완만해짐을 의미한다. 이어 목표 평균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초기값에 대해서는 협력학습( $\beta=.147, p<.001$ ), 타인배려( $\beta=.238, p<.001$ ), 참여의식( $\beta=.308, p<.001$ )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1기 변화율에 대해서는 타인배려( $\beta=-.168, p<.01$ )와 참여의식( $\beta=-.240, p<.001$ )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기 변화율에 대해서는 협력학습( $\beta=-.646,$



$p<.05$ )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고3 시점의 협력학습, 타인배려, 참여의식 점수가 높을수록 목표의 초기값이 높고, 타인배려나 참여의식 점수가 높을수록 대1 시점까지의 변화율은 완만해지며, 협력학습 점수가 높을수록 대졸 시점 이후 변화율이 완만해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저목표 하락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참여의식( $\beta=.380, p<.001$ )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1기 변화율에 대해서는 타인배려( $\beta=-.415, p<.05$ )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앞선 두 유형과 마찬가지로 고3 시점의 참여의식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공헌 목표의 초기값이 높고, 타인배려 점수가 높을수록 대1 시점까지의 변화율은 완만해짐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시민성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beta s=.059\sim.173, p<.05$  이상) 이로써 모든 집단에서 각 시점의 시민성이 높을수록 사회공헌 목표의 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8> 발달유형별 혼합회귀분석 결과(표준화, 비표준화 계수)

	목표 상승 유형					
	초기값		1기 변화율		2기 변화율	
	B(SE)	$\beta$	B(SE)	$\beta$	B(SE)	$\beta$
협력학습6	0.147(.061)	0.190*	-0.050(.026)	-0.352*	0.005(.033)	0.060
타인배려6	0.354(.074)	0.400***	-0.025(.039)	-0.154	-0.036(.051)	-0.415
참여의식6	0.175(.074)	0.230*	-0.028(.036)	-0.203	-0.054(.041)	-0.727
목표 평균 유형						
협력학습6	0.101(.020)	0.147***	-0.002(.008)	-0.019	-0.016(.008)	-0.646*
타인배려6	0.206(.027)	0.238***	-0.026(.010)	-0.168**	-0.002(.011)	-0.056
참여의식6	0.228(.024)	0.308***	-0.032(.008)	-0.240***	-0.014(.009)	-0.515
저목표 하락 유형						
협력학습6	0.116(.092)	0.183	0.022(.027)	0.184	-0.058(.040)	-0.296
타인배려6	0.107(.092)	0.129	-0.066(.037)	-0.415*	0.054(.052)	0.213
참여의식6	0.260(.082)	0.380***	-0.014(.028)	-0.107	-0.054(.039)	-0.259
목표 상승 유형						
	사회공헌 목표9		사회공헌 목표10		사회공헌 목표11	
	B(SE)	$\beta$	B(SE)	$\beta$	B(SE)	$\beta$
시민성9	0.129(.026)	0.116***				
시민성10			0.062(.018)	0.098***		
시민성11					0.069(.026)	0.138**
목표 평균 유형						
시민성9	0.067(.007)	0.059***				
시민성10			0.049(.005)	0.066***		
시민성11					0.050(.009)	0.090**
저목표 하락 유형						
시민성9	0.065(.028)	0.068*				
시민성10			0.076(.016)	0.131***		
시민성11					0.066(.024)	0.173**

\* $p<.05$ , \*\* $p<.01$ , \*\*\* $p<.001$ , 변인명 뒤의 숫자는 측정시점(예: 협력학습6=6차년도 협력학습)

### 3) 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

다음으로 발달 유형들의 최종 결과변인인 삶의 만족도를 투입하여 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3단계 방식에서 결과변인 차이 검증을 위한 DU3STEP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이 변인을 투입하기 전과 후 유형 분류가 변화하지 않도록 고정한 상태에서 유형에 따른 결과변인의 차이를  $\chi^2$  검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구 결과 삶의 만족도의 하위 유형간 전체적인 차이가 확인되었다( $\chi^2 = 47.386$ ,  $p < .001$ ). 사후 검증 결과 목표 상승 유형과 목표 평균 유형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이 두 유형들은 저목표 하락 유형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표 9〉 발달 궤적 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

	평균	표준편차	사후검증	$\chi^2$	$p$
1. 목표 상승 유형	6.974	0.221	1 vs. 2	2.061	0.151
2. 목표 평균 유형	6.637	0.032	2 vs. 3	27.807***	0.000
3. 저목표 하락 유형	5.378	0.180	1 vs. 3	45.722***	0.000

\*\* $p < .001$

##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KELS 자료를 사용하여 고등학교 3학년 시기부터 대학교 졸업 후 3년이 지난 시기까지 학생들이 추구하는 사회공헌 목표가 어떻게 발달하며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 내에 목표의 발달 궤적을 기준으로 잠재 유형의 특성이 무엇인지 알아본 뒤, 이어 공동체 의식이 발달 유형의 소속 확률과 성장 요인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그리고 시민성이 대학교 4학년과 그 이후 각 시점에서의 목표 추구를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발달 유형에 따라 삶의 만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 1. 목표 발달 및 궤적 유형

먼저 사회공헌 목표의 발달은 고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 대학교 4학년부터 졸업 3년후까지 두 시기에 서로 다른 변화율을 보이는 분할함수 형태의 궤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사회공헌 목표를 비롯한 생애목표의 발달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보고되었지만(Lüdtke et al., 2009; Salmera-Aro & Nurmi, 1997) 청소년기에는 변화가 발생하기도 하며(예: 문병상, 2013), 변화와 안정성 둘 다를 보이는 특성(예: 정유지, 이은주, 2018) 또한 발견된다. 두 시기로 나는 변화

을 중 1기 변화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목표의 증감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반면 2기 변화율은 유의하게 감소하고 있어, 선행 연구들처럼 안정적이면서도 변화하는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단, 2기 변화율이 유의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공헌 목표를 포함한 내재적 성격의 생애목표(개인성장, 대인관계 등)가 대학생 시기 이후 감소한다는 결과(임효진 외, 2019)와 일부 겹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발달 궤적으로 볼 때 목표의 유지 혹은 상승이나 하락을 보이는 이질적인 유형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두 번째 연구 문제의 분석 결과 목표 상승 유형, 목표 평균 유형, 저목표 하락 유형의 3개 유형으로 구분되는 모형이 자료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유형(약 85%)을 제외하면 나머지 두 유형이 비슷한 비율(7.6%, 7.4%)로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이 두 유형은 소수 집단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궤적의 모양이 상이하고 공변인들의 설명력도 차별적이기 때문에 유형들의 특성을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목표 평균 유형은 연구 대상 전체의 발달 패턴과 유사한 반면 목표 상승 유형이나 저목표 하락 유형은 평균 집단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독특한 궤적을 보여준다. 이 두 유형의 공통점은 2기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크고, 이는 대학교 4학년 시점 이후의 목표의 증감이 가파른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목표의 가치 인식이나 헌신이 대학교 졸업 시기와 그 이후에 본격적인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긍정심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Bronk, 2014; Damon et al., 2003)은 개인을 넘어선 사회적 이익이나 발전을 추구하는 목적을 연구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발달 과업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와 목적에 헌신하며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기는 거의 유사하다고 하였으며 (Schwartz, 2007), 이는 대략 청년기에 해당한다. 또한 19세까지 정체성 탐색을 하는 청소년들은 23세 무렵 목적과 관련된 의미있는 경험들을 보고한다는 결과가 있다(McLean & Pratt, 2006).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발달 유형 분화의 시기와 거의 일치하며, 이때 사회공헌과 관련된 목표 추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목표 추구 활동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상승 유형과 하락 유형이 확연히 구분된 것으로 보인다.

## 2. 공동체 의식, 시민성,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련성

세 번째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목표의 발달 유형을 예측하는 공동체 의식과 각 시점의 목표 수준을 예측하는 공동체 의식과 시민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첫째, 공동체 의식 중에서도 협력학습이나 참여의식의 예측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이들 변인이 높을수록 평균 혹은 목표 상승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의식이 높을수록 목표 상승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즉 전체적으로 보면 목표 수준이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시기에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다수 학생이

속한 평균 유형의 경우 공동체 의식 변인들은 감소하고 있는 목표를 다소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협력학습, 타인배려, 참여의식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사회공헌 목표의 내용은 공동체 의식인 협력, 배려, 참여를 다룬다. 기존 연구(김은석, 송경희, 2019; 인효연, 길혜지, 2017)에서도 공동체 의식이 실제로 그와 관련된 활동이나 관련 목표를 추구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중학교 1학년 시기의 공동체 의식은 중학교 3학년 시기 생애목표 중 사회기여 목표에 남녀학생 모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이현주, 채유정, 2014)가 있다. 이는 공동체 의식이 이후 사회공헌 목표를 추구하는 정도가 높아지는데 도움이 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연결된다.

둘째, 9차(2011년)이후 사회공헌 목표를 예측하는 시민성에 대한 설명력을 알아보면, 모든 시점에서 정(+)적인 동시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즉 시민성이 높을수록 대학교 4학년과 졸업 이후 목표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시민성은 선거 투표, 납세·국방의 의무, 정치·사회단체 활동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시민의식을 다루고 있다. 시민성이 높을수록 사회공헌 목표가 높다는 결과는 모든 시민을 위한 참여와 봉사를 토대로 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의식과 태도(조찬래, 2012; Ross, 2007)를 토대로 이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형성하고 추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셋째, 목표 발달 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을 분석한 결과 목표가 평균 수준이거나 상승하고 있는 유형은 저목표 하락 유형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공동체 이익 추구하고 같은 내재목표의 추구가 자기실현, 삶의 만족, 활력을 예측하였고(Kasser & Ryan, 1996, 2001), 사회참여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의 수준이 높았으며(김명일, 고아라, 임경미, 2013; 이정민, 정혜원, 2019), 사회적 의무와 기대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목적 의식과 목적 헌신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Lee et al., 2018). 또한 목적 연구 문헌에서도 자신보다 큰 사회와 세계를 위한 목적을 가지게 되는 경우 희망이나 삶의 만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Bronk et al., 2010; French & Joseph, 1999; Furrow et al., 2004; Ryff, 1989).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도 이렇듯 안녕감에 기여하는 사회공헌 목표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기부터 특정 목표의 추구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유형이 구분된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사회공헌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대학생의 적응과 안녕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점에서 저목표 하락 유형 집단을 위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그 예로는 먼저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통해 강의실 안에서의 학습을 강의실 밖에서의 사회적 기여 활동과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목적 중심 프로그램(Cohen & Jordan, 1996)에서처럼 캠퍼스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한 평균 유형 집단의 경우라도 목표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시점의 공동체 의식 그중에서도 참여의식이 높을수록 이후의 감소율이 그나마 완화되고 있다. 따라서 학령기의 공

동체 의식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와, 원활한 교우관계 형성을 위해 학교 중심의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박현정, 김전옥, 손윤희, 2015).

### 3. 연구의 한계와 제언

연구의 한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사회공헌 목표 구인에 대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사회공헌 목표의 내용적 특수성은,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성격에 한정되어 있다. 다른 연구에서 유사한 주제로 다루어진 사회적 목적(Lee et al., 2018)이나 시민형 목적(Bronk et al., 2010)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사회공헌 목표의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애목표 연구에서 다양한 목표 추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사회공헌 목표와 유사하거나 상이한 목표의 발달 궤적 및 그 유형을 비교하는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

둘째는 연구 모형에 대한 것이다. 공동체 의식과 시민성 또한 시간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사회공헌 목표와의 관계를 다변량잠재성장모형 등을 사용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다른 패널자료를 이용한 연구(박현정 외, 2015)에서는 공동체 의식 또한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공동체 의식, 시민성 성장의 종단적 관계 또한 목표 변화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대한 것이다. 먼저 대학교 입학 시점과 졸업 시점의 중간 해당하는 기간에 목표가 측정되지 않아 대학교 재학 중의 목표 발달을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대학생 응답자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른 집단의 목표 발달이나 유형을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대학생만 포함한 이유는 이 집단이 전체 표본 수의 과반수 이상(76%)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 목적상 관찰되지 않은 집단이 사회공헌 목표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알아보려 하였기 때문에 이미 관찰된 집단(예: 취업자, 군입대자)과 혼합될 경우 목표 변화에 의한 구분이 불분명해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 생애목표 발달에 대한 연구는 간혹 발견되지만 사회공헌 목표나 공동체 의식 혹은 시민성과의 관계를 알아본 것은 드물기 때문에 청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 목표의 발달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고영남(2017). 청소년의 생애목표와 삶의 만족의 관계: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매개 효과. **한국교육학연구**, 23(4), 161-182.
- 김명일, 고아라, 임경미(2013). 초기청소년의 사회참여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4(1), 71-84.
- 김민성, 조운정(2017).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목표와 생애목표와의 종단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4), 393-420.
- 김성수, 윤미선(2013). SDT의 목표내용이론에 기반한 청소년용 생애목표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학연구**, 51(4), 87-117.
- 김양분, 임현정, 신혜숙, 남궁지영, 신종호, 홍세희(2010). 한국교육종단연구2005(IV).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RR2010-24.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김은석, 송경희(2019). 고등학교 3학년의 생애목표 잠재 프로파일: 발달적 영향 요인과 대학생활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2(2), 103-125.
- 김태한(2017).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청소년의 확장된 공동체에 대한 이타적 목표의식에 미치는 효과. **교육사회학연구**, 27(1), 31-53.
- 문병상(2013). 내·외재적 미래목표 인식의 종단적 변화가 성취목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7(1), 35-50.
- 박가나(2009). 청소년 참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6(1), 273-306.
- 박현정, 김전옥, 손운희(2015).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의 종단적 변화와 영향 요인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6(4), 107-127.
- 배병렬(2014). Amos 21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신종호, 서은진, 이유경(2011). 생애목표검사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5(2), 255-276.
- 이정민, 정혜원(2019). 중학생의 봉사활동 참여와 시민의식 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종단적 매개효과 검증. **중등교육연구**, 67(1), 67-93.
- 이현주, 채유정(2014).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 사회-정서, 생애목표의 수준 및 구조적 관계에서의 성차. **한국청소년연구**, 25(2), 173-207.
- 인효연, 길혜지(2017). 청소년들의 삶의 목표 유형에 따른 진로정체감, 공동체 의식 및 삶의 만족도 차이. **미래청소년학회지**, 14(1), 25-49.
- 임성애(2019). 청소년기 내재적 생애목표의 발달양상과 삶의 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연구. 제8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효진, 류재준(2019). 성장신념과 그것의 관계에서 목표 내용의 역할. **교육종합연구**, 17(1), 43-70.
- 임효진, 이채원(2019). 초등학생의 미래목표 프로파일과 미래시간 관점, 그것의 관계. **초등교육연구**, 32(2), 119-143.
- 임효진, 최은주, 박호익(2019). 청년기 생애목표의 공존발달 유형. 제13회 한국교육중단연구 학술대회 자료집.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정유지, 이은주(2018). 청소년기 생애목표 프로파일의 종단적 변화 및 예측요인 검증. **교육심리연구**, 32(1), 79-98.
- 조찬래(2012). 민주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13(2), 71-92.
- 최영미, 송인섭(2013). 대학생의 미래지향목표, 근접하위목표, 과제도구성지각 및 자기조절전략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7(1), 77-98.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 Asparouhov, T., & Muthén, B.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Using the BCH method in Mplus to estimate a distal outcome model and an arbitrary secondary model. *Mplus Web Notes*, 21(2), 1-22.
- Austin, J. T., & Vancouver, J. B. (1996). Goal constructs in psychology: Structure, process, and content. *Psychological Bulletin*, 120(3), 338-375.
- Bronk, K. C. (2014). *Purpose in life: A critical component of optimal youth development*. New York: Springer.
- Bronk, K. C., Finch, W., & Talib, T. L. (2010). Purpose in life among high ability adolescents. *High Ability Studies*, 21(2), 133-145.
- Cohen, A., & Jordan, J. (1996). Audrey Cohen College system of education: Purpose-centered education. In S. Stringfield, S. M. Ross, & L. Smith (Eds.), *Bold plans for school restructuring: The New American Schools designs* (pp. 25-52). Mahwah, NJ: Erlbaum.
- Damon, W., Menon, J., & Bronk, K. (2003). The development of purpose during adolescence.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24(3), 119-128.
- Emmons, R. A. (1996). Personal strivings: An approach to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5), 1058-1068.
- French, S., & Joseph, S. (1999). Religiosity and its association with happiness, purpose in life, and self-actualisation. *Mental Health, Religion & Culture*, 2(2), 117-120.
- Furrow, J. L., King, P. E., & White, K. (2004). Religion and positive youth development: Identity, meaning, and prosocial concerns.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25(1),

17-26.

- Grant, A. M. (2008). Does intrinsic motivation fuel the prosocial fire? Motivational synergy in predicting persistence, performance, and productivit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3*(1), 48-58.
- Grouzet, F. M., Kasser, T., Ahuvia, A., Dols, J. M. F., Kim, Y., Lau, S. & Sheldon, K. M. (2005). The structure of goal contents across 15 cul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5), 800-816.
- Kasser, T., & Ryan, R. M. (1996). Further examining the American dream: Differential correlates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3), 280-287.
- Kasser, T., & Ryan, R. M. (2001).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Optimal functioning and the relative attainment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In P. Schmuck & K. Sheldon (Eds.), *Life goals and well-being* (pp. 116-131). Gottingen, Germany: Hofrefe & Huber Publishers.
- Hill, P. L., Burrow, A. L., & Bronk, K. C. (2016). Persevering with positivity and purpose: An examination of purpose commitment and positive affect as predictors of grit.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7*(1), 257-269.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Lee, S. Matthews, M., Shin, J., & Kim, M. (2018). Academically gifted adolescents' social purpose. *High Ability Studies*. Advanced online publication.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13598139.2018.1533452>
- Li, F., Duncan, T. E., Duncan, S. C., & Hops, H. (2001). Piecewise growth mixture modeling of adolescent alcohol use dat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8*(2), 175-204.
- Lüdtke, O., Trautwein, U., & Husemann, N. (2009). Goal and personality trait development in a transitional period: Assessing change and stability in personality develop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4), 428-441.
- Malmberg, L. E., Ehrman, J., & Lithén, T. (2005). Adolescents' and parents' future beliefs. *Journal of Adolescence, 28*(6), 709-723.
- McLean, K. C., & Pratt, M. W. (2006). Life's little (and big) lessons: Identity statuses and meaning-making in the turning point narratives of emerging adults. *Developmental Psychology, 42*(4), 714-722.



- McMillan, D. W.,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 Nurmi, J. E. (1987). Age, sex, social class, and quality of family interaction as determinants of adolescents' future orientation: A developmental task interpretation. *Adolescence, 22*(88), 977-992.
- Nurmi, J. E., Poole, M. E., & Kalakoski, V. (1994). Age differences in adolescent future-oriented goals, concerns, and related temporal extension in different sociocultural contex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4), 471-487.
- Nurmi, J. E., & Pulliainen, H. (1991). The changing parent-child relationship, self-esteem, and intelligence as determinants of orientation to the future during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14*(1), 35-51.
- Ross, A. (2007). Multiple identities and education for active citizenship.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55*(3), 286-303.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Samela-Aro, K., & Nurmi, J. E. (1997). Goal contents, well-being, and life context during transition to university: A longitudi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0*(3), 471-491.
- Schwartz, S. J. (2007). The structure of identity consolidation: Multiple correlated constructs or one superordinate construct? *Identit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and Research, 7*(1), 27-49.
- Schwartz, C. E., Keyl, P. M., Marcum, J. P., & Bode, R. (2009). Helping others shows differential benefits on health and well-being for male and female teen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0*(4), 431-448.
- Vansteenkiste, M., Simons, J., Lens, W., Sheldon, K. M., & Deci, E. L. (2004). Motivating learning, performance, and persistence: The synergistic effects of intrinsic goal contents and autonomy-supportive contex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2), 246-260.
- Wentzel, K. R. (2000). What is it that I'm trying to achieve? Classroom goals from a content perspective.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1), 105-115.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Thousand Oaks, CA: Sage.

Yeager, D. S., Henderson, M. D., Paunesku, D., Walton, G. M., D’Mello S., Spitzer, B. J., & Duckworth, A. (2014). Boring but important: A self-transcendent purpose for learning fosters academic self-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7(4), 559–580.

\* 논문접수 2019년 11월 4일 / 1차 심사 2019년 12월 10일 / 게재승인 2019년 12월 18일

\* 임효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교육심리학 전공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hyolim@snu.ac.kr

## Abstract

## Types of Developmental Trajectories in Social Contribution Goal: Focusing on Sense of Community, Citizenship, and Life Satisfaction

Lim, Hyo-Ji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social contribution goal change over time and whether there exist different types of development in terms of goal change. This study explores how sense of community, citizenship, and life satisfaction are related to the goal development. For the analysis, data from the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2005 (KELS) were extracted from 6th (year 2010) to 11th (year 2011) for five time points. A 3-step approach growth mixture model was employed to identify different trajectories and to examine the relations of sense of community, citizenship, and life satisfaction to the membership of developmental type and growth factors (i.e. initial status and rate of change). Results showed that a piecewise latent growth model fit the data.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three heterogeneous developmental types within the sample such as average type, goal-increasing type, and low goal-decreasing type. Together, social contribution goal was relatively stable in the first stage while the level of goal pursuit was differentiated in the second stage. In addition, the higher sense of community,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being in the average or goal-increasing types. As a time-dependent variable, citizenship significantly predicted social contribution goal, meaning the higher citizenship at each time point, the higher the goal. Finally, goal-increasing type and average type scored higher in life satisfaction than low goal-decreasing typ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velopment of social contribution goal after college level and discusses what support is needed to facilitate more adaptive goals according to the types of trajectory.

Key words: Social Contribution Goal, Sense of Community, Citizenship, Life Satisfaction, Piecewise Latent Class Growth Model

\* Associate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